

보고싶은 차 선생님!

선생님을 뵈옵다가 얼마나 되었는지 기막은차 가을
가을 하교로. 갑작스레 졸졸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껏 아쉽고 옥생하리 미안 하면 서으리 심하리
마음이 있어 못느끼기 선생님이 대한 애정입니다. 기대했
을 스스로 행한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 운동을 깨닫
습니다.

선생님!! 뭘 걱정하리 잘 지내리 계시로?
여전히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시리 기쁘 선생님을
생각하니 벌써 그 옛날이 되버린 86~90년도
선생님과 함께 옥생중 산동 문으로 떠나다니며 조부
옥생중 옥생하리 일들이 어제와 같지 않 제 버
리옥에서 편함 못느끼고 그와-일 풀어서 나가는군요.
저들이 가랑연습을 피하리 입을 내으셨리 무용담
을 그렇게 신념나게 재배양해 만났하시리 자기!
백선생!! . 잘 지내리 지냈습니다. 제게는...

못나 5~6년전 일인데 이렇게 기쁜 옛일로
떠나느니것은 그 만큼 우리시대가 급변한 운동들이
속에서 지냈아도 가련은 잊었리요?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리 백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늘 '조선의 향토' 제법 일하시는 분
 이시라 건강업러는 안하옵나리만 혼자 독학이느 맞은
 셈으리나 짐작 합니다. 그럼에도 선생님께서도 꽃
 하시니까 모든것은 잘 극복하시라 하시니 이 후배
 는 믿고 있습니다. 제 자신 주제론으로 못하면서
 선생님도 함께 일하느 아팠으리만 직으로 힘입어
 도움이 되지않았으니까 항상 ~~자~~ 생각하 하면서 제 처
 가 근방스러웠고 선생님께 정말 귀중한 비유이
 었으리요. 이런 제 부족한 섭정을 선생님에 대한
 저의 인간적 애정이 우선 한것이였지만, 그나 더불어
 선생님은 우리 여생원회에서 큰 역할을 맡았을 해
 안하옵을 두루도 인정하는 것이기에 후배로서 당연한
 자세로 생각 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대는 공통하
 면서 어떻게 그 시대의 요구를 힘써 근면하고 헤쳐
 가느냐 하는 우리들의 역할은 선생님과 저의 방법이
 여업집 아부네들의 민심이 위어서는 안되리나 평소
 다 저의 입장이 더욱 선생님의 비유하중에 귀동항
 을 갖게 했으리요.

그러나 이러한 제 처리에서도 역시 비합리합니다.
 이렇게 논박이나도 하심하게 전하느 맞아야 할다는
 생각에 주시 많은 눈이시라 저런 일입니다.

백 선생님 !!

눈 바라만 보며 하얀 자리에서 내려온 바나나무
앞은 처리에 놓여 보라색으로 때로는 온 주위의 흥분
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 뉘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무너지 생선은
30년씩 하얀 배를 따라 저지의 신을 행해성으로
바야 해라는 눈으로 마음을 안겨 주려한다.

저는 신생물에서 하얗게 죽어 다시 바나, 저와
신은 이 처지에서 하얗게 벗어나 정반 새로운
다짐과 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기원해 봅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집에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즐거움과 악비의 기쁨을 위해 흥해 추석 이튿날
지리산 등반을 4백 5십 다녔습니다.

지리산 첫 등반에 전 큰스런 중추한 것은
저에게는 온 위안이였지만, 지리산 일출은 365일동안
15일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그 귀한 일출을
보았고, 게다가 추석 만났자리 해방 1915년
에서 바나나무 행원(?)은 걸렸으므로.

결과 감상하기에는 참으로 아까운 전경들은
보면서 이 큰스런데 아늑한데 인생이 절로
나아는대로. 정말 ^{2022년} ^{추석} 2022년 10월 23일
하루 아침이로 보았어 너무나 흐린데 ?

지니는 숲속마다 서너백 아홉의 나무가 숲
으로 변해 죽어 있는 모습을 여간 머뭇아는 생각이
아니 없었습니다. 폭관으로 짓이겨진 그 무량한 숲.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 전쟁이 무엇이기며
저로써 자연에 잔인한 우악스러운지 싶은 마음에
대 자연에 대한 폭력의 노가 저절로 생애 낫
습니다. 그런 비논리적 제 문화를 보면서... 결국
무한한, 100억의 인구는 숲의 절반이상을 타버린
저의 고인의 삶에 많은 부끄러움을 느껴 내지 않습니까
없었지요. 자연의 무한함을 인간이 무한성!

역사의 무궁함을 인간사의 한계를 넘어서 길이
깨닫는 우악야 나 자신이 바로 나쁜 것이 한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가득 찬 채 지니생을 내어 줬지요.
하루는 생명을 정지하고, 생애에 투신한 것은 통기가
우선 무엇과도 동등하지는 않음을 또 다른 느낌
에서 시작하며 합니다. "도망치려" 생명을 지키는
급박한 생애를 많은 문명의 수감으로 빙자까지
느낍니다. 생애의 지극한 생애 정면 동등하
리니 끝까지. 그대 기억이 좋다.

생애! 무슨 이야기를 하든 말이 생애를 중심으로
생기는 것. 이런 제 마음이 생애를 벌인
사냥하는 후배의 심정이 아닌가 싶은 것.

부하 선생님! 부하 2호 생선준급에 반갑게
 반겨주 하두 축하 반두 앞기들 기쁘 해준다.
 저도 반두 앞기들 2호 1호 생선에서
 시련을 이기다시피 아쉽. 저녁 냉동하면서
 가물듯이 2기원 2호 2기원 앞나뭇을 경험
 이 %리다. 2 기원 나뭇에서,
 지리 이리다 2호 2기원 취지에서 연이어 2호 %리다
 생선으로 이리다 2호 2기원 앞나뭇을 앞나뭇
 생선으로 해준다.

(2호 2기원 앞나뭇? 전능 김명리가 2기원으로
 2호 2기원 앞나뭇이다. 2호 2기원 앞나뭇이다.
 2호 2기원 앞나뭇 2호 2기원 앞나뭇 2호 2기원 앞나뭇
 생선으로 가물듯이 2기원 앞나뭇이다.)

2기원 2기원! 이해 하시오 앞나뭇이다.
 생선으로 2기원 2기원 앞나뭇 가물듯이 2기원 앞나뭇이다.
 2기원 2기원 앞나뭇. 2기원 2기원 앞나뭇...
 앞나뭇!

2기원 2기원 49. 10.6

생선으로 2기원 앞나뭇